



### ‘키스 먼저 할까요?’·‘나의 아버지’

# 40대 마음 흐든 두 안방극장

## 아줌마-아저씨로 시청층 극명

### 코믹하지만 잔잔한 감동에 공감

떠들썩한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특정 집단의 마음을 울린 드라마 두 편이 있다. 40대 이상 아저씨, 아줌마들의 뜨거운 감성평이 이어진다. 그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낫다. 지난 24일 끝난 SBS TV ‘키스 먼저 할까요?’와 종영까지 4회가 남은 tvN 수목극 ‘나의 아버지’다. 두 드라마 주 시청층이 갈리는 것도 흥미롭다. ◇아줌마 사로잡은 감우성의 ‘키스 먼저 할까요?’ 이 드라마의 문을 연 것은 김선아의 기막힌 코믹 연기였고, 문을 닫은 것은 감우성의 쓸쓸한 감성 연기였다. 초반 강렬한 코미디가 사라지자 시청자도 다소 이탈했다. 그러나 감우성을 지지한 아줌마 팬들의 변함없는 ‘충성’ 덕에 이 드라마는 끝까지 8~9%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내일모레 오십인 남녀가 만나 펼쳐는 두 번째 사랑을 따라간 ‘키스 먼저 할까요?’는 출발선에서 표방한 ‘어른들의 멜로’를 끝까지 유지했다. 이미 알 것 다 알지만 그래도 또다시 수줍고 설레는 사랑의 시작을 경쾌하고 코믹하게 조명한 드라마는 후반부에서는 살아온 날들만큼 쌓인 아픈 사연과 점점 커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조명하면서 많은 사랑을 담아냈다.

이 과정에서 아줌마들이 감우성에게 마음을 내주었다. 그가 연기한 ‘손무한’은 무릎도 쭈시고, 힘도 떨어지고, 심지어 죽을 날을 받아놓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나 중후하고 속 깊고 섬세하고 지적이다. 40대 이상 여성들은 감우성이 표현해내는 손무한, 손무한으로 변신한 감우성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몰입하면서 끝까지 이 드라마를 지지했다. ◇아저씨 사로잡은 아이유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는 아저씨들이 빠져들었다. ‘나만 몰래 보는 드라마’처럼 이 드라마를 감상하는 양상이다. ‘로리타 콤플렉스’, 폭력성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드라마지만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와 울고 싶을 때 빵을 때리는 것과 같은 감성 라인이 애청자들을 만들었다. 지상파 3사 수목극의 경쟁력이 떨어진 와중에 ‘나의 아버지’는 지난 26일 12회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 6.0% 기록하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휴먼 드라마’를 표방하면서 24시간 사생활을 도청하고 온갖 현란한 기술로 누군가를 음해하고 함정에 빠트리는 범죄가 펼쳐져 섬뜩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 마음을 내준 아저씨들은 그같은 설정은 드라마적 장치로 선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해 마음을 닫고 사는 스물한살을 연기하는 아이유의 모습과 연기력에 찬사를 보낸다. “열심히 산 것 같는데 이뤄놓은 것은 없고 행복하

지도 않고...”라는 극중 대사로 요약되는 40대 아저씨들의 현실적인 인생이 이 드라마의 기본 토대다. 연출을 맡은 김원석(43) PD가 최근 간담회에서 주인공 박동훈(이선균 분)을 거론하면서 “박동훈은 꼭 저를 보는 것 같다”며 울먹인 것과 같은 감정을 다른 아저씨들도 느낀다는 반응이다. “2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준 분”이라며 “박동훈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지안의 모습은 그런 아저씨들에게 판타지를 안겨준다. ◇쓸쓸하고 스산한...어른들이 공감하는 감성 두 드라마는 코믹하지만 아프다. 웃음을 실어나르지만 그 끝에는 슬픔을 터뜨린다. 40대에 두 번째 사춘기를 경험하는 ‘어른’들에게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끌어낸다. 꽃청춘이 등장하는 화려하고 예쁜 이야기가 아니고, 주름 자글자글한 배우들이 비루하고 불꽃없는 이야기를 그려내는 까닭에 “착각하다”는 소리 듣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 이미 이 꼴저 꼴 다 본 것 같지만 여전히 미숙한 이들의 상황과 감정이 마음을 꼭 누른다는 평가다. 공감을 끌어낸다는 점이 이 두 드라마의 가장 큰 무기다. 청춘의 사랑에 기댄 드라마도 시청률 1%로 곤두박질치는 현실에서 이러한 호응은 확실히 의미심장하다. /연합뉴스

##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시청률 39.7%

### 평소보다 높은 기록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사진)이 열린 27일 온 국민의 눈이 TV 생중계로 쏠리면서 이를 중계한 방송사들의 시청률이 평소보다 올랐다. 시청률조사회사 TNMS는 전국 3천200가구 표본을 통해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행사는 밤 9시 12~29분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행 환송행사로 총 10개 채널 시청률 합이 39.7%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채널별로는 KBS1 12.8%, JTBC 9.0%, MBC 6.5%, SBS 6.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4%로 가장 높았고, 50대 27.3%, 40대 17.9%, 30대 12.9%, 20대 6.0%를 기록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29~30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첫 악수를 나누던 순간의 시청률 합은 32.5%를 기록했다. 또 기념식수 포함 두 정상 벤치 단축 회담(오후 4시22분~5시20분) 21.6%, 공동 선언문 발표(오후 6시 2~13분) 29.4%,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첫 만남 순간(오후 6시 18~19분) 18.9% 등으로 집계됐다. TNMS는 밝혔다.



한편, 주요 방송사들이 정규편성을 중단하고 온종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한 27일의 일일 가구 평균 시청률은 전날보다 59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가구 평균 TV 시청시간은 8시간 43분으로, 26일의 7시간 44분보다 59분 많았다. TNMS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시청하기 위해 이날 전국적으로 평소보다 TV를 켜놓은 시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일 시청시간은 지역별로는 전남이 9시간 56분으로 가장 길었고, 강원도가 9시간 38분이었다. 전남은 전날보다 무려 4시간 5분 일일 시청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일일 시청시간이 가장 짧았던 지역은 제주도로 6시간 54분이었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던 순간 실시간 시청률은 28.28%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K팝 스타들, 통일 염원 음반 함께 제작

### ‘엑소’ 백현·‘걸스데이’ 민아 등

오는 8월 K팝 스타들이 참여한 새로운 통일노래가 발표된다고 ‘원 케이(One K) 글로벌 캠페인’ 조직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조직위 측은 “20여 명의 K팝 가수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통일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노래는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 2019’ 총괄감독을 맡은 작곡가 김형서 씨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다”고 밝혔다.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고 전 세계인의 지지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으로 2015년 K팝 스타들이 노래한 ‘원 드림 원 코리아’(One

Dream One Korea)와 인순이가 부른 ‘하나의 꿈’, 2017년 국내외 뮤지션들이 참여한 ‘코리아 드림’(Korean Dream) 등의 노래를 선보였다. 그중 ‘원 드림 원 코리아’는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 직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배경음악 중 하나로 사용됐다. 가장에는 엑소의 백현, 방탄소년단의 정국, 갓세븐의 영재, 걸스데이의 민아, 레드벨벳의 웬디, 씨스타 출신 소유 등 국내 대표 K팝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당시 문재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대표도 함께 노래를 불렀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헬수들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10 좋은 아침
10	00 2018 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제2차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우리가 만난 기적(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기분 좋은 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특집토론회 남북 정상회담 지역에도 '홍콩' 부나?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 대회	00 디큐멘터리 3일(재)	25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최종우물만국 유류기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50 사이닝스타	00 뉴스브리핑
3	10 디큐 공감 (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가 놀자 50 위대한 유혹자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우리말 겨우기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볼로고 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색선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30 KBS 뉴스 9(광주) 45 KBS 뉴스 9			
10	20 가요무대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위대한 유혹자	00 엑시트(EXIT)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2부작	10 안병하세요	10 가요베스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역사저널 그날 (재)	35 비바 K리그	10 세상의 모든 사람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신상국지) - 제1부 신이 된 영웅(관우)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플라워링 하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월드2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허름선이 과학쇼 08:45 방귀대장 뽀뽀이 09:00 온카드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영계 회담발과 들개 휘나물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한마음의 박수, 사만춘>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3:40 배워서 남줄 14:30 똑똑박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부릉부릉! 부루미즈 16:00 냉장고 나라, 코로롱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마사와 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4 19:00 스프아이드맨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어른들의 평화 베타 1부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별세상> 21:30 한국기행 <꽃보다 할매 1부 나무배와 할머니> 21:50 EBS 디큐프라임 <불의 집1부- 청동의 시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 파킨슨 병 외> 22:45 메디컬 다큐-7요일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 파킨슨 병 외> 23:55 엄마를 찾자마 24:45 지식재배 24:50 세계의 드라마 <포 더 피플 5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0일(음 3월 15일 壬辰)	
子	36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48년생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피해가 예상된다. 60년생 자연히 알게 될 것이나, 72년생 불편하다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84년생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다. 행운의 숫자 : 41, 11	午	42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리해진다. 54년생 천군만마를 얻음과 같이 흠족하리라. 66년생 모양새만 보아도 충분히 가치를 잡을 수 있다. 78년생 발전을 기약하게 될 것이다. 90년생 임의적이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88, 20
丑	37년생 자신의 길만 묵묵히 진행하고 있으면 된다. 49년생 현행대로라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61년생 끝까지 주의하라. 73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매달려야 해결될 문제다. 85년생 여러 가지 행운이 보따리 채울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0, 78	未	43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빠르다. 55년생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67년생 중용으로써 삼가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79년생 나가기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딘 것이다. 91년생 험하게 도약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76, 27
寅	38년생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도량을 형성하게 되리라. 50년생 연쇄적인 길사로 이어진다. 62년생 목욕에 부합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4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해야 실효적이다. 86년생 다 털어 놓아야 할 입장에 처한다. 행운의 숫자 : 87, 52	申	44년생 돌발적인 상황이 실제로 보일 것이다. 56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68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80년생 분명한 성과가 도출되겠다. 92년생 여유를 갖고 일단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80, 00
卯	39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 해야 할 때다. 51년생 무모함은 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63년생 한 마음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다. 75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다보라. 87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좌우된다면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73, 63	酉	45년생 방치한다면 화근이 될 수 있다. 57년생 상대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만 제대로 조처한다. 69년생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무리한다면 다음 날에 지장이 있다. 93년생 오늘은 재물을 얻는 길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6, 21
辰	40년생 상심해 하는 형상이다. 52년생 명확한 기준으로 개념을 분리하라. 64년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76년생 부분에 한 되므로 염두에 둘 필요 없다. 88년생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하다. 행운의 숫자 : 55, 44	戌	34년생 운기가 험하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46년생 급하다면 고만하되 말고 믿고 맡겨도 되느니라. 58년생 소중히 여겨왔던 것으로부터 얻는 바 있으리라. 70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신속히 하라. 82년생 도전에 불만하다. 행운의 숫자 : 56, 98
巳	41년생 중차대한 일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53년생 본질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라. 65년생 주변의 시선에 얽매지 말고 자유롭게 펼쳐라. 77년생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고해야겠다. 89년생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4, 08	亥	35년생 굽히지 말고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47년생 나타나는 효과가 커진다. 59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라. 71년생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83년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96, 42